

정남진 우산도 새단장... 치유·쉼 있는 '관광 장흥'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선정...사업비 20억 확보 시설 개선 추진 통일기원탑·테마숲 공원·어린이 놀이공간·예술 공연장 등 조성

2007년부터 조성한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가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 새단장한다. 장흥군은 오는 2025년까지 민간 투자 2743억원 규모 복합 리조트 건립을 마무리해 정남진이 남해안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흥군은 전남도 주관 '2023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재생사업은 무안 화산백련지, 화순 온천, 곡성 도립사 등 관광 명소와 함께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4개 관광지 가운데 도비 10억원을 확보하며 가장 많은 사업비를 가져왔다.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전남지역 35개 관광 명소 가운데 오래된 시설을 보완하고 장애인·노약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인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는 지난 2007년부터 조성됐다. 정남진 전망대와 테마숲 공원, 불빛정원 등이 들어섰다.

우산도 관광지의 핵심 시설인 정남진 전망대는 지난 2011년 7월 완공했다.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 높이가 45.9m로, 홍보관과 갤러리 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이들 시설에 대한 정비 필요해지면서 장흥군은 재생사업 공모에 지원했다. 정남진 전망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관광 수요가 국내로 몰리면서 지난해 방문객이 10만2392명으로, 전년(2만6490명)의 4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군은 전망대의 오래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무인 안내기, 영상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은 '통일기원탑'을 새로 단장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정남진 전망대를 둘러싼 테마숲 공원은 꽃동산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 어린이 놀이 공간과 예술공연장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광장을 조성한다.

전망대 안에 있는 갤러리 카페는 증축 공사를 거친다. 전시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복합공간 '감성방앗간'으로 탈바꿈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친 현대인의 심신을 달래줄 '웰니스' 여행지로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를 꾸밀 예정"이라며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달성해 장흥군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이 전남도 '2023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2007년부터 조성된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를 새단장한다. 관광지 핵심 시설인 정남진 전망대. <장흥군 제공>

혁신도시에 '이동 노동자 전용 쉼터'

나주시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선정...7월까지 설치

나주시가 대리운전, 배달 서비스 종사자 등 이른바 '이동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동 노동자 전용 쉼터를 설치한다. 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동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한 노후 환경 제공에 목적이 있다.

광주와 교통 인프라가 인접한 나주지역은 시도를 오가는 광역기차 형태의 이동 노동자가 많으며 근로 후 평균 대기 시간이 2시간을 웃돈다.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2시간 21분, 배달기사는 2시간 3분 가량으로 조사됐다.

최근 나주시 노동상담소의 실태조사에서도 이주 노동자의 최대 현안은 대기시간 중 휴게와 식사, 수면 등을 위한 쉼터 설치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쉼터는 혁신도시 상가 중심지에 오는 7월 말까지 1억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이다. 120여㎡ 규모인 쉼터에는 휴게실과 남·여 수면실, 교육실, 냉·난방기 등 필수 가전을 갖춘다. 또 분기별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통사고 때 대응 요령과 금융 상담, 생활법률, 근골격계 질환 진단 및 운동 처방, 금연 지원 등이 이동 노동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모에 선정돼 민선 8기 공약인 이동 노동자 복지와 건강 증진, 자존감 향상을 위한 쉼터 조성이 이뤄지게 됐다"며 "쉼터가 단순 휴게 기능을 넘어 노동자 간 커뮤니티, 문화 복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희 기자 yson@kwangju.co.kr

나주 농식품가공업 경쟁력 키운다

소규모 업체 브랜드·마케팅 등 지원...24일까지 신청

나주시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가공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가공분야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가공업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 나주시는 농식품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우리 농산물 농식품 가공 활성화 지원',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맞춤형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신청 받는다. 농식품 가공 활성화 사업은 농식품 가공품 홍보 및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두고 '브랜드' (네이밍·BI·캐릭터), '마케팅' (광고·행사·문화체험·홍보물 제작), '네트워킹' (홈페이지, 쇼룸몰 입점)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농식품 제조·가공 영업등록이 된 법인 또는 개인 10개소로 개소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식품가공업체 맞춤형 지원 사업은 관내 농산물 구입 실적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가공업체 5곳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입, 개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포장재 제작, 포장재 디자인 개발, 소규모 기계 장비 구입 등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먹거리계획과)를 방문, 시정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자 중 관내 농산물 구입실적과 인증 내역 등을 평가해 4월 중 사업별 선정 업체를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 안내, 신청 문서는 시정 누리집 또는 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농식품가공팀)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 지원을 통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도모해가겠다"며 "마케팅, 네트워크 등 분야별 적격 업체 선정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 고품가구에 전등 리모컨 설치

홀몸 어르신 가구 52곳

장성군 북이면 이장협의회가 이달 말까지 고품 가구 52곳에 전등 리모컨을 설치해준다. 북이면 이장협의회는 북이면 복지기동대와 함께 '빛의 천사 전등 리모컨 설치사업' (사진)을 벌이고 있다. 이장협의회는 마을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며 생긴 영농 폐기물을 판매해 전등 리모컨 세트 구매 비용을 마련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의 편의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김한조 북이면 이장협의회장은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현성 북이면장은 "북이면 이장협의회와 복지기동대의 헌신적인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모든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 농산물 급식 확대

군·교육청 푸드플랜 협력 강화

장성군이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푸드플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간담회에는 장성지역 영양교사와 영양사, 장성교육지원청,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방문해 친환경 농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광주 시점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을 찾아 장성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장성로컬푸드직매장 2층 교육장에서 급식 관계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에 전하며 초등 학교 급식 중 과일 간식 확대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공급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또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장성군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 복지급식 등에 공급하는 통합물류시설로



장성지역 영양교사와 영양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친환경 채소 재배 시설하우스를 찾아 농가로부터 로컬푸드 생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장성군 제공>

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먹거리 종합대책 '푸드플랜' 추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로 쓰이는 로컬푸드의 안전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으로 장성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 양파, bhc에 年 910t 납품

군·외식그룹 상생 협약...우수 농산물 공급·판로 제공 '원인'

함평 양파가 대형 외식 기업인 bhc그룹 상품에 쓰인다. 함평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의 함평군수와 임금옥 bhc그룹 대표이사 등이 '상생 협력을 이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금석현 농업회사법인 해성 대표이사과 호남정교 고인수 대표이사, 오재갑 제일 A&H 대표이사, 정찬행 함평군 양파생산자협의회 회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함평 특산물인 양파가 bhc그룹에 연간 910t 납품된다.

함평 양파는 bhc그룹의 외식 브랜드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bhc치킨, 해성푸드원(라면스프) 제조 원료로 쓰인다. 함평군과 지역 농가는 우수한 함평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bhc그룹은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데 힘을 보탠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군의 우수 농산물이 다양한 유통 판로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 군정 홍보할 청년 찾습니다

청들 서포터즈 모집...SNS 팔로워 200명 이상 청년 30일까지

화순군은 오는 30일까지 화순군 청년 정책 홍보를 위한 '2023 청들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화순에 주소를 두고 소셜미디어(SNS) 구독자가 200명 이상인 청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모두 5명을 모집하며,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청들 서포터즈 참가자들은 블로그와 사진, 영상(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부문에서 활동하게 된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해 화순군의 청

년 정책을 소개하면 매달 최대 15만원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 화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오른 신청 서류를 작성해 화순군청 청년센터 1층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hwasunyoung@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청년만의 색다른 시각으로 개성 넘치는 군정 홍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